

새로운 QT

2024.07

거룩한 돌파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거룩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2010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그의 최신작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에서 그는 능력주의(Meritocracy)의 심각한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능력을 중시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하며, 그들이 얻는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능력주의적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믿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얻는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고 패자들은 폭압을 느끼게 됩니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성공에 대한 가혹한 태도를 키우며,

이는 오만으로 이어지고, 승자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소위 세계에서 앞서 나간다는 나라들이 더욱더 그런 경향이 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샌델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가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고, 실패는 개인의 무능력과 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본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성공 원인의 8할 이상은 운(運)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운은 ‘어디서 태어났는가’입니다. 세계은행 출신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ć)는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나라의 평균소득과 불평등지수만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의 최소 50%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나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한국인들은 아주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운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유전·환경 두 요소를 모두 제공합니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은 소득의 약 1/3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태어난 나라와 부모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성취에 나라가 50%, 유전이 30% 이상을 차지하니 “인생 성취의 8할이 운이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도 우리의 순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노력할 힘조차도 사실 상당 부분 타고나며, 부모에 의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잘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오만해지지 말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과 돈과 시간을 나누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운(運)”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건강, 가족, 교회, 나라.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겠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노블리스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외 연약한 단체들과 교회들을 돕는 일을 창립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노블리스 정신의 실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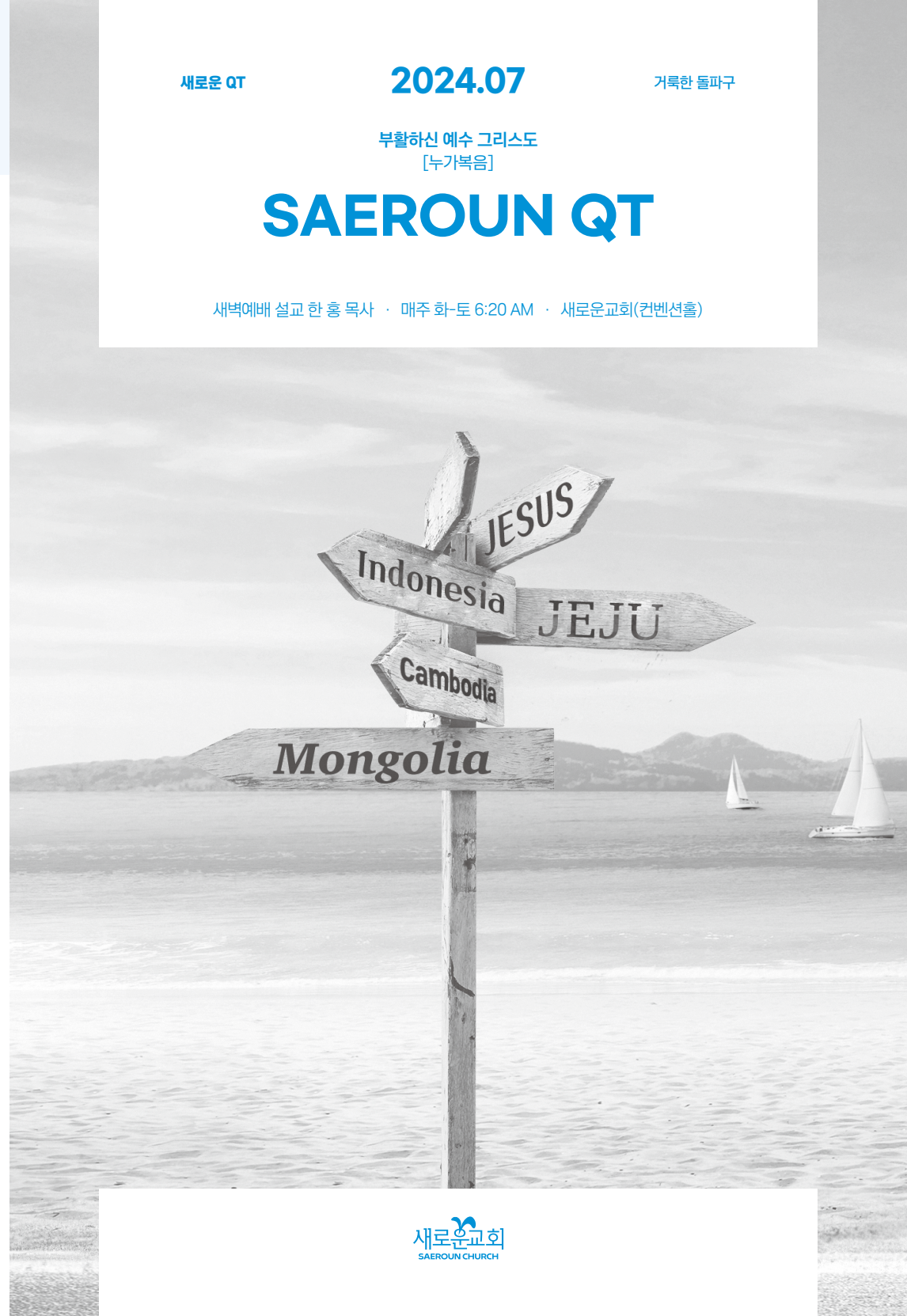
올여름 우리 교회는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제주 등으로 수많은 아웃리치 팀들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와 손과 발 되어 그분들을 섬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김홍**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2024.
07

SAEROUN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0	1	2	3
몽골 현지인 사역자대회 / 1-5일			
7	8	9	10
14	15	16	17
		화요 커피브레이크 개강	
21	22	23	24
28	29	30	31
여름성경학교 / 26-28일 YEM : 힐링리조트(가평)			

QT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5	6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S하우스
11	12	13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S하우스 남성시역 캠프 광고 포레 유스호텔
18	19	20
		06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	26	27
		08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여름성경학교 / 26-28일 아동부 : S하우스 유년부 : 양지파인리조트(용인)
1	2	3
		초등부 : 미리내캠프(양평) 고등부 :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

2024. 07

1	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마 10:24-33
2	화	유다에게 사탄이 임하다	눅 22:1-6
3	수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다	눅 22:7-16
4	목	최후의 만찬	눅 22:17-20
5	금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다	눅 22:21-23
6	토	제자들의 다툼	눅 22:24-30
7	주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17
8	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9	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눅 22:31-34
10	수	제자들을 향한 경고	눅 22:35-38
11	목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39-46
12	금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	눅 22:47-53
13	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	눅 22:54-62
14	주일	그곳에 계신 하나님 [초청강사:김학진 목사]	겔 48:35
15	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3-15
16	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눅 22:63-71
17	수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다	눅 23:1-5
18	목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신 예수	눅 23:6-12
19	금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눅 23:13-16
20	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다	눅 23:18-25
21	주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초청강사:오덕교 총장]	잠 22:6
22	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딤후 3:15-17
23	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눅 23:26-31
24	수	십자가에 달리시다	눅 23:32-34
25	목	유대인의 왕 예수	눅 23:35-38
26	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39-43
27	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다	눅 23:44-49
28	주일	황금률 [초청강사:이건호 목사]	마 7:7-12
29	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 14:13-15
30	화	예수께서 장사되시다	눅 23:50-56
31	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눅 24:1-8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마 10:24-33

24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A student is not above his teacher, nor a servant above his master.

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It is enough for the student to be like his teacher, and the servant like his master. If the head of the house has been called Beelzebub, how much more the members of his household!

26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So do not be afraid of them.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What I tell you in the dark, speak in the daylight; what is whispered in your ear, proclaim from the roofs.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penny? Yet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ground apart from the will of your Father.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So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men, I will also acknowledge him before my Father in heaven.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But whoever disowns me before men, I will disown him before my Father in heaven.



02

화

유다에게 사탄이 임하다

눅 22:1-6

1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Now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called the Passover, was approaching,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some way to get rid of Jesus, for 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3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Then Satan entered Judas, called Iscariot, one of the Twelve.

4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And Judas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officers of the temple guard and discussed with them how he might betray Jesus.

5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They were delighted and agreed to give him money.

6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He consented, and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Jesus over to them when no crowd was presen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3

수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다

눅 22:7-16

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Then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on which the Passover lamb had to be sacrificed.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Jesus sent Peter and John, saying, 'Go and make preparations for us to eat the Passover.'

9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Where do you want us to prepare for it?' they asked.

10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He replied, 'As you enter the city,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Follow him to the house that he enters,

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and say to the owner of the house, 'The Teacher asks: Where is the guest room, where I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12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all furnished. Make preparations there.'

13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They left and found things just as Jesus had told them. So they prepared the Passover.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When the hour came, Jesus and his apostles reclined at the table.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For I tell you, I will not eat it again until it finds fulfillment in the kingdom of God.'

... 묵상(MFF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4

목

최후의 만찬

눅 22:17-20

17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After taking the cup, he gave thanks and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For I tell you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And he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In the same way, after the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

...묵상(MFF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금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다

눅 22:21-23

21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But the hand of him who is going to betray me is with mine on the table.

22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The Son of Man will go as it has been decreed,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him.'

23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They began to question among themselves which of them it might be who would do this.

...묵상(MFF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토

제자들의 다툼

눅 22:24-30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Also a dispute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as considered to be greatest.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Jesus said 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ose who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call themselves Benefactors.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But you are not to be like that. Instead,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 like the youngest, and the one who rules like the one who serves.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For who is greater, the one who is at the table or the one who serves? Is it not the one who is at the table? But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You are those who have stood by me in my trials.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And I confer on you a kingdom, just as my Father conferred one on me,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so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 묵상(MFF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7

주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17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Afterward Jesus appeared again to his disciples, by the Sea of Tiberias. It happened this way: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Simon Peter, Thomas (called Didymus), Nathanael from Cana in Galilee,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 disciples were together.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I'm going out to fish," Simon Peter told them, and they said, "We'll go with you." So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 but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Early in the morning, Jesus stood on the shore, but the disciples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He called out to them, "Friends, haven't you any fish?" "No," they answered.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He said,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some.' When they did, they were unable to haul the net in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fish.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The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As soon as Simon Peter heard him say, 'It is the Lord,' he wrapped his outer garment around him (for he had taken it off) and jumped into the water.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The other disciples followed in the boat, towing the net full of fish, for they were not far from shore, about a hundred yards.





-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When they landed, they saw a fire of burning coals there with fish on it, and some bread.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Jesus said to them, 'Bring some of the fish you have just caught.'
-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Simon Peter climbed aboard and dragged the net ashore. It was full of large fish, 153, but even with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Jesus said to them, 'Come and have breakfas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ask him, 'Who are you?' They knew it was the Lord.
-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Jesus came,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did the same with the fish.
-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This was now the third time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Again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

08

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09

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눅 22:31-34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you as wheat.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
를 굳게 하라

But I have prayed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And when you have turned back, strengthen your brothers.'

33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But he replied,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
라 하시니라

Jesus answered, 'I tell you, Peter,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three times that you know me.'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0

수

제자들을 향한 경고

눅 22:35-38

3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Then Jesus asked them, 'When I sent you without purse, bag or sandals, did you lack anything?' 'Nothing,' they answered.

36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지어다

He said to them, "But now if you have a purse, take it, and also a bag; and if you don't have a sword, sell your cloak and buy one.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It is written: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and I tell you that this must be fulfilled in me. Yes, what is written about me is reaching its fulfillment."

38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The disciples said, 'See, Lord, here are two swords.' 'That is enough,' he repli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목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

눅 22:39-46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
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Jesus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 of Olives,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40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
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On reaching the place, he said to them, 'Pray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41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
도하여

He withdrew about a stone's throw beyond them,
knelt down and prayed,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
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다 하시니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
더라

An angel from heaven appeared to him and
strengthened him.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And being in anguish,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was like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When he rose from prayer and went back to the
disciples, he found them asleep, exhausted from
sorrow.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Why are you sleeping?' he asked them. 'Get up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2

금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

눅 22:47-53

- 47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crowd came up, and the man who was called Judas, one of the Twelve, was leading them. He approached Jesus to kiss him,

- 48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but Jesus asked him, 'Judas, are you betraying the Son of Man with a kiss?'

- 49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When Jesus' followers saw what was going to happen, they said, "Lord, should we strike with our swords?"

- 50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 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And one of them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utting off his right ear.

- 51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But Jesus answered, "No more of this!" And he touched the man's ear and healed him.

- 52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Then Jesus said to the chief priests, the officers of the temple guard, and the elders, who had come for him, 'Am I leading a rebellion, that you have come with swords and clubs?'

-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Every day I was with you in the temple courts, and you did not lay a hand on me. But this is your hour-when darkness reign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3

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

눅 22:54-62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Then seizing him, they led him away and took him into the house of the high priest.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 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But when they had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courtyard and had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with them.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A servant girl saw him seated there in the firelight. She looked closely at him and said, 'This man was with him.'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But he denied it. "Woman, I don't know him," he said.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도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A little later someone else saw him and said, 'You also are one of them.' 'Man, I am not!' Peter replied.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About an hour later another asserted, 'Certainly this fellow was with him, for he is a Galilean.'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Peter replied, "Man,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Just as he was speaking, the rooster crowed.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5

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3-15

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Then Isaiah said, 'Hear now, you house of David! Is it not enough to try the patience of men? Will you try the patience of my God also?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He will eat curds and honey when he knows enough to reject the wrong and choose the right.



16

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눅 22:63-71

63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The men who were guarding Jesus began mocking
and beating him.

64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
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They blindfolded him and demanded, 'Prophecy!
Who hit you?'

65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And they said many other insulting things to him.

66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
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At daybreak the council of the elders of the people,
both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met
together, and Jesus was led before them.

67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
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If you are the Christ,' they said, 'tell us.' Jesus
answered, 'If I tell you, you will not believe me,

68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and if I asked you, you would not answer.

69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But from now on, the Son of Man will b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God.'

70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
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
니라
They all asked, 'Are you then the Son of God?' He
replied,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71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
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Then they said, 'Why do we need any more
testimony? We have heard it from his own lip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7

수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다

눅 23:1-5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Then the whole assembly rose and led him off to Pilate.

2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And they began to accuse him, saying, 'We have found this man subverting our nation. He opposes payment of taxes to Caesar and claims to be Christ, a king.'

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So Pilate asked Jesus,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
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Then Pilate announc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crowd,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this man.'

5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But they insisted, 'He stirs up the people all over Judea by his teaching. He started in Galilee and has come all the way here.'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8

목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신 예수

눅 23:6-12

6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On hearing this, Pilate asked if the man was a Galilean.

7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When he learned that Jesus was under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to Herod, who was also in Jerusalem at that time.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When Herod saw Jesus, he was greatly pleased, because for a long time he had been wanting to see him. From what he had heard about him, he hoped to see him perform some miracle.

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He plied him with many questions, but Jesus gave him no answer.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standing there, vehemently accusing him.

11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Then Herod and his soldiers ridiculed and mocked him. Dressing him in an elegant robe, they sent him back to Pilate.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That day Herod and Pilate became friends-before this they had been enemie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금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눅 23:13-16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Pilate call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the rulers and the people,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and said to them, 'You brought me this man as one who was inciting the people to rebellion. I have examined him in your presence and have found no basis for your charges against him.

15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Neither has Herod, for he sent him back to us; as you can see, he has done nothing to deserve death.

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Therefore, I will punish him and then release him.'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

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다

눅 23:18-25

18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
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With one voice they cried out, 'Away with this man!
Release Barabbas to us!'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
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Barabbas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an
insurrection in the city, and for murder.)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Wanting to release Jesus, Pilate appealed to them
again.

21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
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But they kept shouting, 'Crucify him! Crucify him!'

22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For the third time he spoke to them: 'Why? What
crime has this man committed? I have found in him
no grounds for the death penalty. Therefore I will
have him punished and then release him.'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But with loud shouts they insistently demanded that
he be crucified, and their shouts prevailed.

24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
도하고

So Pilate decided to grant their demand.

25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
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He released the man who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insurrection and murder, the one they
asked for, and surrendered Jesus to their wil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2

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딤후 3:15-17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3

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눅 23:26-31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As they led him away, they seized Simon from Cyrene, who was on his way in from the country, and put the cross on him and made him carry it behind Jesus.

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A large number of people followed him, including women who mourned and wailed for him.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Jesus turned and said to them,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For the time will come when you wi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women, the wombs that never bore and the breasts that never nursed!'

30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Then "they will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o the hills, "Cover us!"'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For if men do these things when the tree is green, what will happen when it is dr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수

십자가에 달리시다

눅 23:32-34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Two other men, both criminals, were also led out with him to be executed.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the criminals-one on his right, the other on his left.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5

목

유대인의 왕 예수

눅 23:35-38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The people stood watching, and the rulers even sneered at him. They said,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the Chosen One.'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The soldiers also came up and mocked him. They offered him wine vinegar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and said,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There was a written notice above him, which read :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6

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39-43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re hurled insults at him: "Aren'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다

눅 23:44-49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It was now about the sixth hour, and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for the sun stopped shining.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The centurion, seeing what had happened, praised God and said, 'Surely this was a righteous man.'

48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When all the people who had gathered to witness this sight saw what took place, they beat their breasts and went away.

49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But all those who knew him, including the women who had followed him from Galilee, stood at a distance, watching these thing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주일

황금률

마 7:7-12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Which of you, if his son asks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Or if he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nake?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이요 선지자니라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30

화

예수께서 장사되시다

눅 23:50-56

50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Now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a member of the Council, a good and upright man,

51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who had not consented to their decision and action. He came from the Judean town of Arimathea and he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52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53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Then he took it down, wrapped it in linen cloth and placed it in a tomb cut in the rock, one in which no one had yet been laid.

54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It was Preparation Day, and the Sabbath was about to begin.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The women who had come with Jesus from Galilee followed Joseph and saw the tomb and how his body was laid in it.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Then they went home and prepared spices and perfumes. But they rested on the Sabbath in obedience to the commandmen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1

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눅 24:1-8

-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women took the spices they had prepared and went to the tomb.

- 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tomb,

-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but when they entered, they did not find the body of the Lord Jesus.

- 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While they were wondering about this, suddenly two men in clothes that gleamed like lightning stood beside them.

-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In their fright the women bowed down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but the men said to them,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He is not here;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with you in Galilee:

-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again.'

- 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Then they remembered his word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4.
07

세례자 간증

01

1. 윤해연 성도 (C강남공동체)
2. 송재연 성도 (W서초공동체)
3. 김인수B 성도 (S강남공동체)
4. 최 혁 성도 (W서초공동체)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시작된 믿음의 여정

윤해연 성도 (C강남공동체)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분위기의 가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가끔씩 여유가 있을 때는 남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나름의 보람도 느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성향이어서 종교에 큰 중심을 두고 살아온 가정도 아니었고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삶을 가꾸어 가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데 가치를 더 두어 왔던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 또는 지인의 영향으로 교회에 가서 가끔 예배를 드리며 교회라는 곳을 접할 기회는 많았으나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예배라기보다는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잠시 얻어보자는 마음에서의 참여였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현재를 중시하는 성실한 성향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회에 진출하여 나름 남들이 보기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사회적 위치를 누릴 수 있었고 노후를 고민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암투병을 극복해 오신 아버지가 코로나 시기에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가족들과 격리된 상황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

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깊게 느끼면서 종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접해온 교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무렵 마침 지인을 통해 새로운교회의 VIP 주간에 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덩석 그 손을 잡게 되었고, 그렇게 참석하신 주일 예배에서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크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심코 등록을 하였는데 그 후 몰아치는 새가족 교육, 순공동체 생활을 받아들이고 참여하게 되었고 단단한 믿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순장님과 순원 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장님과 순원 분들이 타인을 위해 진심으로 뜨거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해 오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기도로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올 초 40일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해온 삶을 바꾸고 영적인 성숙함을 키우고자 합니다. 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고 저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뜻이 저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송재연 성도 (W서초공동체)



저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만난 남편은 경제적으로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늘 저를 아껴주고 보호해 주고 존중해 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것은 진심으로 제 인생의 큰 축복인데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나니 그런 남편의 좋은 점도 제 눈에 점점 흐려지고 최후로 키우고 싶은 저의 아들에게 많은 것을 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기껏 곳은 부모님 뿐이었는데 부모님도 연로해 가시고 제 걱정을 하시게 하는 것이 불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 말고 제 걱정과 두려움을 터놓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으로 폐 끼치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제 말에 착한 제 남편을 폄하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저를 동정하지도 않고 뒷말을 유포하지도 않을 그런 존재를 바랐습니다. 인간에서 찾다 보니 그런 존재는 없어 보였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했고 자존감은 낮아졌고 그럼에도 행복하고 괜찮은 척 보이려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을 통해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불러 주셨는지, 지금 순종하는 삶에서 느끼는 평안, 무엇보다 그분이 해결해 주신 고난과 복.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럼 나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찾아 듣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 보고 그러다가 혼자 불 꺼진 방에서 처음

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려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QT를 해가면서 조용히 저만의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별거벗은 나의 모습을 다 보여도 왜 그랬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없이 잘 보이고 싶어 졌습니다. 그런 신앙의 초보자인 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신앙적 궁금증을 해소해 줄 신앙의 선배를 우연히 만나게 해 주셨고 공동체로 기쁘게 나아 올 수 있게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막연히 앞날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더 좋게 더 선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다음에 주실 더 선한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주신 저의 아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키우면 그 갈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니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조용히 믿고 싶은 하나님이었는데, 저의 마음을 바꾸시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매주 순모임에서 목상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저를 바꾸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등불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아직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것에 많이 흔들리는 저이지만,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의 참 좋은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성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인수B 성도 (S경남공동체)



미국에 이민을 준비하던 도중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아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새벽에 환상을 보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어머니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회복하게 되었고 이후 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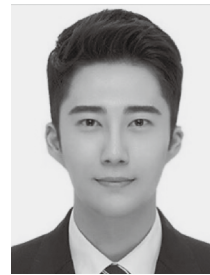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시절 CCC를 통해 전도와 영적 훈련을 받았고 이후 졸업한 후 소아시아에서 2년간 CCC 파송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베트남 선교를 다녀온 지금의 아내를 만나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22년 9월은 아들 하성이를 아내의 태 속에서 만나게 된 달이자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기쁨과 지옥의 달이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빛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야 할 캄캄한 앞날을 생각하면 저희 부부는 태 중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하성이는 출산 예정일보다 3주나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청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하성이는 중도 난청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23년도는 하성이의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 재검

사를 받고 언어치료를 위해 힘쓰며, 한편으로는 사기범 검거를 위해 경찰서를 여러 번 찾아가고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에 힘써온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려갈 무렵 23년 12월 겨울성령부흥집회는 저희 부부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라'는 주제는 사기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한 부흥집회에서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위로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확신케 되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성이를 카시트를 태워 매주 순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순장님과 순원 분들과의 영적 교제는 눈앞에 놓인 문제보다 더 가까운 작은 천국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부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답답하고 속이 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바늘구멍 같은 틈새를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성이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어가실 때 하성이가 하늘나라에 벽돌 한 조각을 함께 쌓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성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며 지금의 순간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려 합니다. 어려웠던 순간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 성실히 새로운 교회에서 하성이를 멋지게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서도 '다니엘 임팩트'를 끼치는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 혁 성도 (W서초공동체)



저는 뉴젠 유아 1부, 아내의 유아 2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 서로 다른 성향을 맞춰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기간 중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생명을 잉태했다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로 하여금 저희 부부가 서로를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뉴젠 교사로 작년 패밀리심포니를 준비했던 과정과 40일 특제를 하며 제가 다니엘 금식을 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패밀리 심포니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임신 초기여서 오랜 시간 울동을 하며 찬양하는 것이 무리가 될까 주변에서 염려하기도 했지만 아내는 열정적으로 찬양 선생님으로 섬기며 행복해하던 모습에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임신 직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 주셨는데, 만삭 때 교회에서 '다니엘 금식'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 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사인이란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었고 특제가 진행되는 40일간 다니엘 금식을 감사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출산 전에 말씀과 기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기 전엔 저의 자아가 너무 강하여 제 자신이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교실을 통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움에 따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저의 책임을 점점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겨울부흥집회와 40일 특새 및 다니엘금식 기간 동안 저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깎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 자신이 죽으니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고 저희는 임신기간 동안 더욱 하나로 연합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출산을 하고 아들을 바라볼 때면 이 아들에게는 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들이 어디 조금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저희의 자녀이기 이전에 저희에게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할 책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듯, 이 세대가 갈수록 악해진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산 다니엘이란 인물처럼 그 이름대로 살아가서 이 시대에 '다니엘 임팩트'를 끼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부모인 저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리라 결단해 봅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살기를 아내와 함께 다짐합니다.

2024.
07

성경속으로 간증

02

1. 구요한 성도 (N강남공동체)
2. 김윤서B 성도 (우면공동체)
3. 김서은 성도 (S강남공동체)
4. 조현진 성도 (우면공동체)
5. 박혜윤A 성도 (C강남공동체)
6. 김도희 성도 (E서초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성경속으로

구요한 성도 (N강남공동체)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간절한 신앙을 보며 자라왔지만, 성경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성경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된 거룩한 책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치 너무 멋져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편하게 다가갈 수 없는 전학생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성경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편지와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의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성경의 조각조각이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수많은 부분을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목사님들의 다른 시각을 통해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점입니다. 10주간 고급 코스요리를 맛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한 홍 목사님의 노아 홍수 특강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인간들의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이후 현재까지, 인간수명 최대 120년까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

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성경속으로 과정을 10년 만에 다시 수료하면서 성경의 구조성에 대해 미미하게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준비, 동시에 그 한 사람을 통한 이스라엘을 이끄심,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광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 용하시고, 그 일을 이뤄 가셨습니다. 이전에는 제 광야의 이유를 다윗과 요셉에게서 찾았지만, 그 또한 교만의 산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가롯 유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롯한 군중의 모습이 저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며 다윗과 요셉이 아닌 바리새인에서 저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내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준 성경속으로

김윤서B 성도 (우면공동체)



성경속으로를 재수강하기까지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LTS과정을 시작하게 되어 읽어야 할 책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주함 속에 살게 될게 너무 뻘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왔을 때 선뜻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했을까요? 2학기 순예배를 매주 화요일 7시 30분마다 7층 회의실에서 드렸습니다. 바로 옆 7층 새로운홀에서는 성경속으로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순예배 중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자꾸 저를 궁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성경속으로가 새롭게 리뉴얼되었다는 말에 솔깃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2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안 읽었는데도 주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온전히 일독한 것은 새로운교회에 와서 특새 완주 선물로 받은 개역개정 새로운바이블로 100일 통독을 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연대기성경, 비전성경으로 계속 통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깊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성경속으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정말 수두룩 합니다. 정말이지 이 느낌은 감자를 캐는 느낌이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

과 시골집에서 감자를 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뿌리만 들어 올리면 그 안에 노릇노릇한 감자알이 가득 하더라고요. 성경 안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특히 포로시대 부분에 대한 강의가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편리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눈덩이와 같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이 정말 섬뜩했습니다. 작은 타협이었을 뿐인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에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 어떤 길을 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길을 여는 자입니다. 제가 어떤 길을 내느냐에 따라 다음세대의 방향이 정해 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타협이 나비효과로 온 나라를 죄로 몰리게 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니 지금 제 안에 남아 있는 죄성이 다음세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고쳐지기가 힘든 방향성이 된다는 사실에 겁이 났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예로 보여주시는 살짝 빼놓아진 평행선과 쟁가를 통해 그 사실이 더 와닿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했던 저의 모습에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정직하고 맑고 깨끗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속으로는 시간과 환경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또 3수강할 생각입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속으로를 통해 맞은 물론이고 고품격 성경뉘페를 차려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읽어야 하는” 성경이 아닌 “읽고 싶은” 성경이 되게 해 준 프로그램

김서은 성도 (S강남공동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성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폭풍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기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홍 목사님의 모든 강해설교 영상을 매일 차례로 들으며 성경 공부하며 매일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사업 일정과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역 일정에 밀려서 사실 “성경속으로” 프로그램이 저에게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간과하고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장이 되고 나니 실제적으로 새가족 순원들에게 제대로 우리 새로운교회의 모든 양육 과정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이끌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새로운교회에서 제가 이수하지 않은 모든 양육과정을 다 이수해 보기로 마음먹고 성경속으로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10주의 여정으로 시작된 성경속으로 수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속으로 프로그램은 성경의 각 권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양육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속으로 10주간의 수업에 한 주마다 부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준비하신 양질의 내용들을 한눈에 쏙 들어오고 바로 이해되기 쉽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가 아닌 성경을 읽고 싶다고 느

껴지게 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아닌 매주 다른 목사님께서 수업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하루의 수업을 위해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신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조원 분들과의 풍성한 주제 나눔까지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니요.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매일 꾸준히 통독하고 있었지만 저는 성경속으로를 수강하는 첫날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속으로 진도에 맞춰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했고 너무나 재미있고 기쁘게 10주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10주간 성경 1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프로그램!

“읽어야 하는” 성경이 아닌 “읽고 싶은” 성경이 되어 재미있게 읽게 되는 프로그램!

매번 다시 또 수강해도 새록새록 새로운 것 같은 프로그램!

늦게나마 이 프로그램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속 이야기가 이제는 제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조해진 성도 (우면공동체)



책을 읽기 전 지은이의 서문과 목차(차례)를 먼저 읽는 것과 바로 본 글로 들어가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큼니다. 퍼즐조각을 맞출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완성된 전체의 그림을 먼저

보고 하나하나를 맞추어 가면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속으로의 강의는 성경의 흐름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또한 성경속으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놀랐던 것이 있는데, 강의식 수업이라 ‘느슨한 마음으로 들어보아야지’하는 연약한 저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자각이 없는 제가 조장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과 자세로 열심히 수업에 임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수업시간에 일찍 도착하고 더 집중해서 들었고, 조원들과의 나눔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교제하도록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속으로 강의 중 가장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던 부분은 구약도 신약도 아닌, 신구약 중간기였습니다.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400년간의 침묵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신 400

년간의 기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 400년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가장 쉬운 버전의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하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로마의 평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법률을 잘 제정되게 만드는 등 신약시대 복음전파를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어제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 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속으로를 듣는 기간 동안 매주 ‘성경목록기’를 부르면서 성경목록을 순서대로 외운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성경말씀을 찾을 때마다 여기 폼다 저기 폼다 했는데, 이제는 어느 부분을 대충 피면 나오겠구나 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늘 자주 읽게 되는 창세기나 시편과 같은 말씀 외에 오바다서, 나훔서 같은 낯선 성경도 있다는 것을 되짚어보게 되었고 읽어보는 것까지 연결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의 출판을 담당하시고 편집장 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말씀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감 없이 균형 있게 받아들이며 제 삶 속에 성경말씀을 통한 살롬이 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경속으로를 통하여 저를 다시 잡아 주신 하나님

박혜윤A 성도 (C강남공동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은, 그중에서도 구약은 늘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를 다닌 덕분에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구약에 대한 것이었고, 제 마음속에는 '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하게 새겨져 있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남편과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가까이 해 보자 다짐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커피브레이크를 신청해 들었고, 저는 뒤이어 성경속으로를 신청했습니다.

첫 시간에 구약의 전체적인 구성을 배우고 나니 약간 자신감이 붙는 듯했습니다. 구약의 열 두 상징을 통해 전체적인 구성을 기억하기가 한결 쉬웠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 것도, 당시에 온갖 자연물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던 인간들에게 모든 자연만물이 하나님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음을 배웠고 이후에 창세기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그 안에 나온 인간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히 노아 홍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

며 지난 모습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즈음에 교회 출석도 안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지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여러 사정으로 제 마음에 원망과 화가 가득했고, 제 불행들을 하나님 뜻으로 돌리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시 잡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를 배운 것도 신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둘 사이의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음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던 인생의 힘든 순간들, 저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며 세상으로 휩쓸려 다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사도들이 흠어짐으로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러던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떠오르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귀한 배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흐려졌던 믿음이 다시 새로 설 수 있었던 성경속으로

김도희 성도 (E서초공동체)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미끄럼틀과 같아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코

로나 이후, 교회에 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습관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면서도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성경속으로” 강의가 오픈했다는 사실을 설교시간에 듣고 주저 없이 지원했습니다.

“성경속으로” 수업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모르고 지나쳤던 성경의 구석구석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흐려졌던 믿음이 다시 새로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잡인은 일상에 대처할 지혜를 주시는 것이며, 아가서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알려주신다는 점 등을 배우며, 각 책마다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 얼마나 다른지 보았습니다. 99% 복종과 100% 복종의 결과의 차이를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복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

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17-19)”에서는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Zenga의 예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무너짐을 알지 못하고 살면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를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 1:5)”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재정립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속으로” 수업을 수강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강의도 좋았지만, 소모임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매님들께서 공유해 주시는 경험과 간증들을 들으며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07

마더와이즈 간증

03

1. 이한나 성도 (S서초공동체)
2. 박혜영A 성도 (우면공동체)
3. 박은영C 집사 (우면공동체)
4. 윤선영 성도 (E강남공동체)

생명의 근원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참된 자유

이한나 성도 (S서초공동체)



이번 마더와이즈의 자유 과정에서 자유, 참된 자유는 진정한 쉼과 평안함, 자유로움, 그리고 무언가 뚫리는 이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은 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거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라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부터 무언가 모를 답답함이 더욱 커져가는 요즘이었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과의 의견 불일치, 또 아버님과 시누이의 소천 이후 슬픔에 잠겨 계신 시어머님의 외로움과 재정 운용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저희의 가정이 참으로 저에게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6S 기도로 마더와이즈를 시작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조장님은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6S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 했고, 조원들에게도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기 전날, 남편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격렬한 토론에서 다툼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막내 아이가 둘째 누나가 참여하는 합창단에 함께 했으면 하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남편은 동의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고집스럽게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건만, 남편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영역들이 보이면서, 원망스러웠고 그동안 쌓여있던 생각들이 감정적으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

다. 6S 기도를 시작하며 남편에게 주안에서 순종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더와이즈 책을 열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양동이 비유를 통해 제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고, 주님만이 제 삶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본체시며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제가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넘어뜨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말씀을 사용할 때, 그리고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열심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고 시어머님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어버이날 즈음 시어머님께 편지를 쓰라는 마더링 스킵을 적용하던 생각이 납니다. 제 안에 속상한 마음을 가리고 먼저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상황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사실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원과 순에서의 기도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끄셨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마더와이즈를 마치며 다시 마더와이즈 책을 천천히 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못다한 마더링 스킵을 하나씩 적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분주해진 삶을 단순히 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고 싶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늘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밑알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박혜영A 성도 (우면공동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청년까지 주일에는 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청년부 주보를 만들기도 했고 여러 해 매 수련회와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스텝도 주저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크리스천으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20살 후반부에 저에게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삼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크리스천으로 잘 살고 있는 삼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런 거라면 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이유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며 원망의 마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던 어느 날 제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새로운교회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 7년 가까이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저는 교인 등록 마저 거부하며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저는 이 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내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인등록을 했고 바로 마더와이즈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더

와이즈를 통해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새신자가 된 것처럼 누구든 무엇 이든 붙들고 물어보고 간구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며 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 모든 말씀이 맞는 이야기 인지 다들 정말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지...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을 만나 기도하며 하루하루 목상을 나누며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나누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할 일은 오로지 주께 모든 걸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걸 해결하실 것이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과정을 하며 제 아이들은 저의 소유가 아닌 주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여 맡기신 아이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제 자신을 열어드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자녀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도록 내어 드린다면 생명의 샘물이 저의 자녀에게 흘러들어 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옛 육신은 이제 죽고 성령은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제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퍼즐을 제자리에 맞추게 해 준 마더와이즈

박은영C 집사 (우면공동체)



직장인으로서 평일 낮에 매주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에 늘 아쉬워하며 기도해 왔는데 온라인 반이 개설되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자유’였는데 사실 기대고 뭐고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니다. 그냥 ‘마더와이즈’라는 기차에 반드시 올라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겁게 혁혁거렸던 시간도, 감격해서 영영 울었던 시간도, 용기를 내서 회개하던 시간도, 아버지의 따뜻함에 마냥 행복했던 시간도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제 안에 담아둘 수 없는 육신적인 죄가 어떻게 평생동안 제 안에 있었는지... 그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에는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19년 만에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괴로운 2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돌파하고 나니 그 다음은 회복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도 모르던 종양이 날카로운 칼로 완전히 도려내지고, 깨끗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같이 생각됩니다.

모든 게 소중한 은혜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강렬한 은혜는 ‘피크닉 테이블’이었습니다.

‘이제 떠먹이는 일은 그만두고 딸에게 숟가락을 넘겨주어라.’ ‘이제 그만 괴롭히고 나이프를 내려 놓아라.’ ‘선택은 네 딸의 몫이야. 포크를 딸에게 돌려주어라.’ ‘과잉보호의 낱킨을 벗길 때가 되었다.’ ‘딸이 알아서 하도록 소금과 후추를 주어라.’ ‘분노의 잔이 아닌 자비의 잔을 딸에게 주어라.’

‘딸이 집에 오면 언제라도 반갑게 맞아주어야 한다. 불을 늘 밝혀 두고 상을 항상 준비해 두어라.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해주거라.’

이 시간은 제 마음의 밭을 경작(耕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고 괴로웠고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입을 여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묵은 감정과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 주에 딸과 만나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축복하며 널 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나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언제라도 다시 떠날 수 있다고... 그런 곳이 가정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소 무뚝뚝한 딸이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안에 뭔가 모를 무겁고 투박한 끈이 ‘툭’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를 묶고 있던 끈이 ‘툭’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한 날 남편에게 어설픈 말투로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남편의 말에 결을 같이하여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잘못된 퍼즐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특새 40일을 했던 때와 같은 은혜의 파도를 타고 ‘자유’과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이 귀한 과정을 통해 수료 이후에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며 날마다 흡족한 은혜로 부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본분을 깨닫게 된 마더와이즈

윤선영 성도 (E강남공동체)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교회에서 하는 마더와이즈 자유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처음으로 듣는 양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 정도 되

었을 때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한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3년 정도 되는 해외살이에서 둘째까지 출산하고 코로나라는 벽 앞에서 정말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었고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에 소속해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면 더 주께로 나와야 하는데 저는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교회도 아이들은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좀 더 나중에 등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하는 영적훈련이 먼저라는 기도응답을 주셨음으로 막막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유과정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아들,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투쟁이었습니다.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따금 뒤를 돌아보기도 했었고, 제가 너무 현실적인 생각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며 스스로에게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는 저에게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딸임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을 키우며 이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할지 앞으로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들로 키우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생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건 형제간의 관계이고 또한 저와 아이들의 관계인데 자유 과정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두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엄마가 될 수 있는지도 나와있어서 앞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막막할 때마다 이 책을 펼쳐볼 것 같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저를 부인하고 제 등에 있는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부어 주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좀 더 바빠지고 세상에서의 일들로 분주해지더라도 마더와이즈를 통해 배운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을 통해 제가 새롭게 변화받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
07

제1회 한부모가정 후원 미술전시회 'MOTHER'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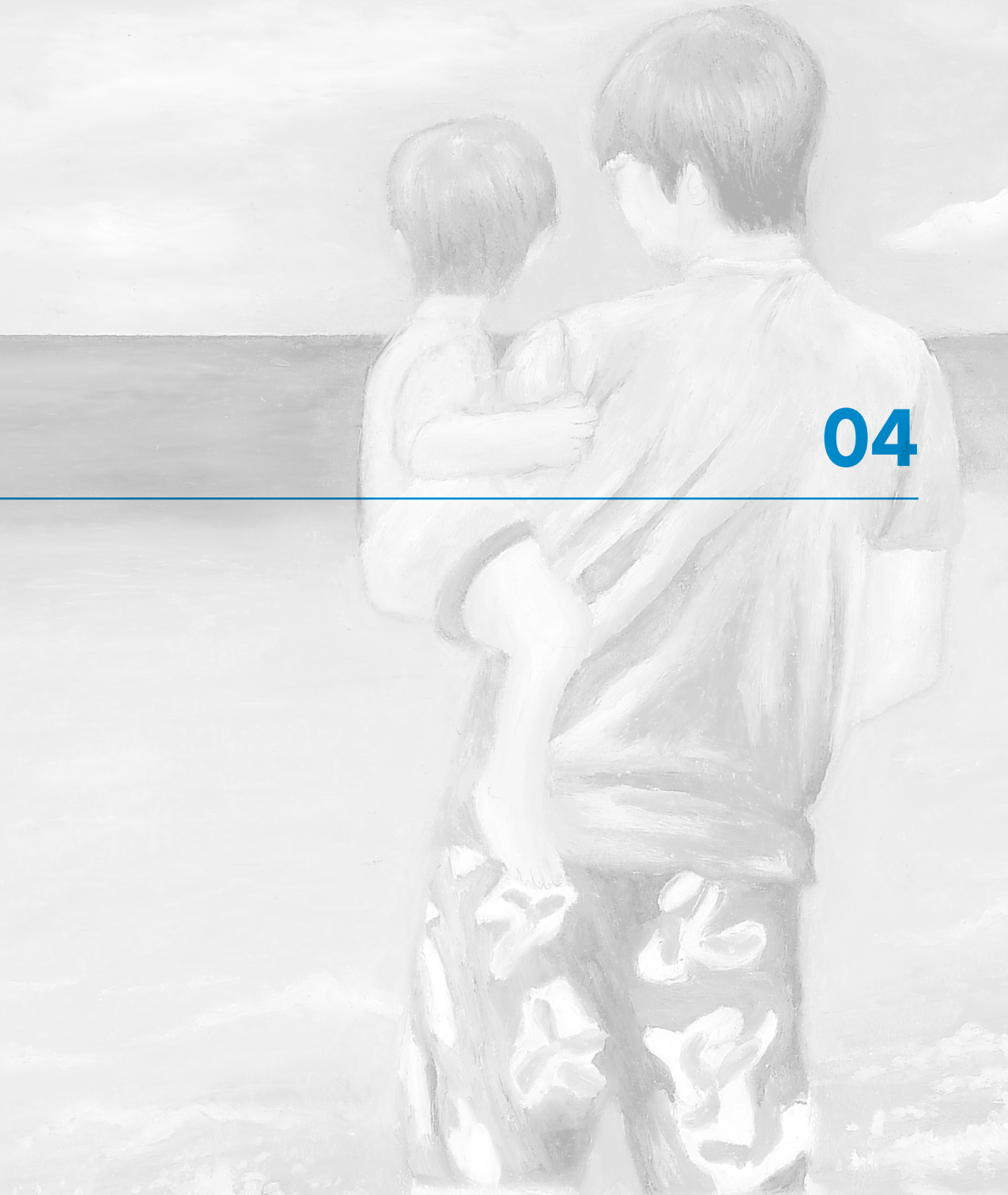
04

| 주최 |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 & PIECENITY

지난 2024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신사동 거암아트홀에서 의미있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MOTHER'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미술전시회는 대한한부모협회인 도담도담과 PIECENITY가 함께 주최하였으며, 한부모가정들을 후원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전시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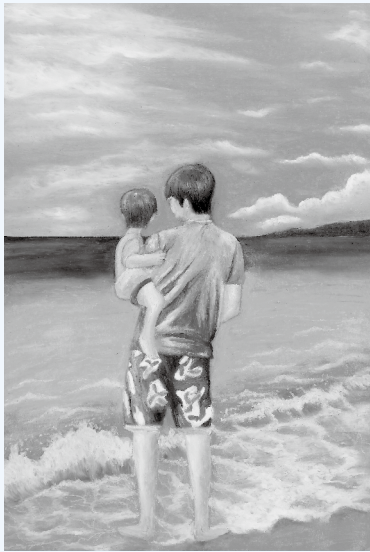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13명의 한부모가정 엄마들과 14명의 자녀 작가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와 스토리를 그림에 담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모든 작품들이 감동적이었지만 이 중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다섯 점의 작품들을 소개하며,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빠의 첫 번째 소원

정윤희 (경기)



너와 함께 할 모든 날~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아이와의 추억 만들기 목록을 하나하나 메모해 가며 결혼기념일에 찾았던 인적 드문 남해 바닷가... 아이 태어나 첫 생일이 되면 돌이 아닌 셋이서 꼭 다시 와보자던 아이 아빠의 소원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용기 내지 못한 미안함에 아직도 마음속에 새겨져있는 아빠의 소원을 상상 속에서 이뤄 보려 합니다. 아이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상상만으로 행복해하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이루지 못한 아빠의 첫 번째 소원을 지켜주고 싶은 난 엄마입니다.

너의 우주가 되어줄게

정윤희 (경기)



“아빠는 네가 세상에 나오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아. 아빠와 눈맞춘 날, 아빠~ 하고 처음 부르는 날, 가장 아장 걷기 시작하면 아빠 손잡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 우리 닳은 별구경 하자. 네가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거야.” 아이가 세상밖으로 나오기만을 바라던 아이 아빠는 입버릇처럼 속삭이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던 아빠를 대신해, 오늘은 털복숭이 아빠가 되어주고, 내일은 천하무적 장난감이 되어주고, 아이를 지켜주는 원더우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해 두해 아이가 성장해가며 어느새 전 아이에게 커다란 우주가 되어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꿈 많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별도, 달도, 먼 우주 행성도, 널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난 너의 어머니니까~

우리의 길잡이, 멋진 우리 엄마

정다혜 (서울)



우리 엄마는 딸 셋을 홀로 키우시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언니가 꿈을 꾸고 이를 수 있게 옆에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키워주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의 꿈을 위해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며 한부모님들에게 도움도 주시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집니다! 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언니처럼 꿈도 이루고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싶어서 언니와 엄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엄마의 거울

김예나 (대구)



엄마의 마음 숲에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간 그 곳 거울 속에는 또 다른 엄마가 있었고, 엄마와 마주하며 눈길을 나누었습니다. 거울 속에 엄마는 나의 엄마가 아니었지만, 나의 엄마는 거울 속의 엄마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으나 같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라며 작게 말을 내뱉는 엄마. 그 말에 미소로 답하는 거울 속 엄마.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엄마는 나의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거울 속 젊은 할머니의 모습은 지금 나의 엄마의 모습이었고 거울 속 어린 엄마는 자라 엄마가 되었습니다.

비눗방울 속 그리움

정윤희 (경기)



우리들의 축복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아빠 살아생전에 아들과 함께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백 가지쯤 생각해 봤다며 내민 종이 위에 쓰여 있던 비눗방울 놀이... 아이가 어려 입으로 불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며 한 살 생일이 지나고, 이듬해 두 살 생일을 맞기도 전에 백 가지 중 열 가지도 채 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와 하고 싶었던 백 가지를 엄마가 채워 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듯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 식구 여행 했던 그 바닷가를 꼭 다시 오자는 약속과 이루지 못하고 떠난 아이 아빠 백 가지 중 한 가지, 아이가 성장해 지금은 어린 아이 장난으로 생각하는 비눗방울 놀이... 아이 아빠를 대신해 하지 못했던 백 가지 중 한 가지를 그림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상상 속에서 이뤄 본 한 가지이지만, 아이를 떠올리며 그림 그리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2024 뉴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



<p>영아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6/29(토), 새로운교회 S하우스</p> <p>유아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7/6(토), 새로운교회 S하우스</p> <p>유치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7/13(토), 새로운교회 S하우스</p>	<p>아동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7/26(금)-28(주일), 새로운교회 S하우스</p> <p>유년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7/26(금)-28(주일), 양지파인리조트(용인)</p> <p>초등부 예수님과 함께 7/26(금)-28(주일), 미리내캠프(양평)</p>
<p>NewGen Kids Who is Jesus? 7/19(금)-21(주일), 새로운교회 영아부실</p> <p>NewGen Junior Who is Jesus? 8/9(금)-11(주일), 실로암펜션(가평)</p> <p>NewGen YEM I AM 7/26(금)-28(주일), 힐링리조트(가평)</p>	<p>중등부 Running Mate, Jesus 8/9(금)-11(주일), 양지파인리조트(용인)</p> <p>고등부 Living life with Jesus 7/26(금)-28(주일), 한국콜마여주아카데미</p>

7월 수요기도예배 '은혜'

7/3 김선일 목사	7/10 김용정 목사 (위례 새로운교회)
7/17 이아론 목사	7/24 강현구 목사
7/31 이상화 목사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 무 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ww.saeroun.net
